

실리콘 몰드를 활용한 초콜릿 사인판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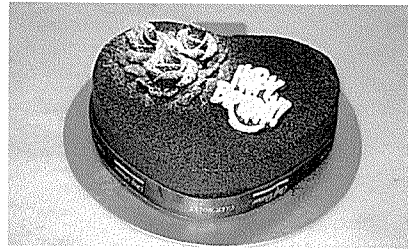
채동현 / 뽕굽는 셰프의 꿈 대표

개성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한몫을 하는 장식물. 현재 사인판 등을 비롯해 데코레이션 재료로 사용되는 장식물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는 있지만 먹을 수 없는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그저 데코레이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어 먹기 전에 빼서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. 그러나 보기에 예쁘고 먹을 수도 있는 초콜릿으로 장식물을 만든다면 제품의 완성도도 높이고,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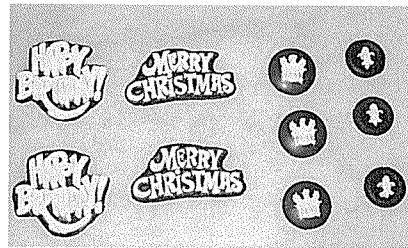
본지에서는 이전에 현장 아이디어 코너를 통해 '실리콘을 이용한 몰드 만들기'를 소개한 바 있다. 이번 호에서는 이 실리콘 몰드를 보다 다양하게 제작해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보는 초콜릿 사인판 제작법을 신는다.

우선 실리콘 몰드는 실리콘(KE 1300), 경화제, 이형제와 원하는 모형들만 준비하면 손쉽게 만들 수 있다. 생일, 크리스마스 케이크 위에 올리는 플라스틱 사인판을 준비해 실리콘 몰드를 뜬 다음 화이트, 다크 초콜릿 등을 녹여 몰드에 채워 넣고 굳히기만 하면 사인판은 완성된다. 초콜릿을 한가지만 써도 좋겠지만, 화이트, 다크 초콜릿 두 가지를 사용하면 보다 고급스런 장식물을 만들 수 있다. 또한 플라스틱 사인판 외에도 입체적이고 질감이 있는 단추, 커피빈, 너트 등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각종 재료를 실리콘 몰드로 떠 두면 새롭고 다양한 초콜릿 장식물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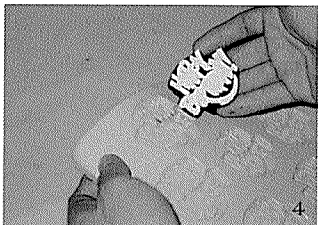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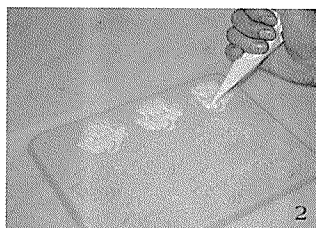
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장식물을 제조하면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 장식물을 구입해 쓰는 것보다 비용도 1/5 정도 절감할 수 있다. 일손이 바쁜 시즌을 대비해 틈나는 시간마다 초콜릿 장식물을 대량 제작해 보관해 두고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.



▲ 초콜릿 사인판을 올려 장식한 케이크



▲ 실리콘 몰드를 이용한 다양한 초콜릿 장식물



몰드 제작 및 초콜릿 사인판 만들기

1. 일반 틀에 화이트 초콜릿을 녹여 부은 후 초콜릿이 약간 굳으면 위에 원하는 모양의 플라스틱 사인판을 간격에 맞춰 붙인다. (화이트 초콜릿이 접착제 역할을 함.)
2. 틀 주변에 이형제를 뿌린 후 실리콘과 경화제를 섞어 ① 위에 부어준다.
3. ②를 하루밤 정도 건조시킨 후 실리콘 몰드를 떼어낸다. <사진 1>
4. 몰드의 글자부분에 녹인 화이트 초콜릿을 채워 넣고 굳힌다. <사진 2>
5. ④ 위에 녹인 다크 초콜릿을 채워 넣고 냉장·냉동고에서 굳힌 후 몰드에서 빼낸다. <사진 3, 4>